

현장과 시각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최근 막을 내린 광주비엔날레에서 화제를 모은 건 '대인시장 북극방 프로젝트'였다.

대인시장에 '재미있는 게 많다'는 입소문을 듣고 폐막 하루 전날인 8일 시장 구경에 나섰다. 북극방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흥미움을 안겨줬다. 이전에 들렀던 중의 공인 비엔날레 본 전시관의 작품들에 도통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터라 즐거움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다.

이국인과 외지 관광객들도 대인시장 프로젝트에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는 데 그럴만했겠다 싶었다. 이곳에는 '작품'도 있었지만 '사람'도 있었으니깐.

물론 이날 박문준 화백의 출판 기념회며 잠시 '전라도 닻'의 집들이 등 재미있는 행사들이 있었던 덕이기도 했지만 대인시장엔 볼거리가 의외로 많았다.

담힌 가게 셔터를 들어올리는 잠미란 선수의 모습이라든가, 담벼락에 그려진 '해대 타이거스' 시절 선동렬 선수의 모습은 일가에 미소를 짓게 했다.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작은 가게에는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돼 있었고, 생선가게 할머니가 공동이를 붙이고 앉았을 정모션 재밌다는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대인시장의 멋진 풍경은 비엔날레 참여작가 뿐 아니라, 시장에 자생적으로 등지를 틈 지어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대인시장을 둘러보다 일이 있어 잠시 들른 공동 예술의 거리는 썰렁하기 그지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시장엔 예술이 있는데, 예술의 거리에 예술이 없는 모습이랄까. 예술의 거리는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보여주기 차피라든가 '외지인'들은 자주 예술의 거리를 찾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쩌면 이번에 전시장을 시내 곳곳으로 확장했던 비엔날레 프로젝트에 '끼지 못한' 사실 자체가 예술의 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환한 대낮의 루미나리에는 흥분이 다를 아니다. 루미나리에는 전시효과만 노린, 행정 기관의 근시안적이고 천박한 문화 마인드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였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최근 광주주시와 구청 등이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가동중이지만 신선하게 느껴지는 건 별로 없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규모에 집착하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몰될 때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엔'은 시내 어딘가에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나 화려한 대신, 신선한 아이디어가 빛났던 이번 대인시장 프로젝트는 예술가·행정가·시민들에게 문화도시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건 분명해 보인다. /mekim@kwangju.co.kr

국제금융시장 재편 적극 협력

한-브라질 정상회담 "신흥경제국 유동성 지원 확대 노력"

이명박 대통령 "불법과업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

한국과 브라질은 19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단으로써 국제금융시장 재편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단은 한국과 브라질, 영국 등 3개국으로, 내년 4월말 이전에 열리는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의 의제 선정과 국제금융 재편 관련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화상 국무회의에서 금융전문가들로 준비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신흥 경제국의 대표권 확대,

신흥 경제국의 금융안정화포럼(FSF) 참여, 선진국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인식을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리우-상파울루-칸베나스간 고속철 사업을 비롯한 플랜트,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원전 개발과 유전 공동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2030년까지 원전 8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리우-상파울루-칸베나스간 520km에 달하는 고속철 건설의 경우 소

로젝트로 내년 2·4분기에 입찰이 예고돼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남미 각국과의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남미간 고위급 포럼의 지속적 개최, 양 지역간 협력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남미 협력 사업'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브라질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수행 경제사절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경제가 정치논리에 너무 휩쓸리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서 "기업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후 (한국시각 19일 오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기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감찬함 "소말리아로 출동합니다" 해군 구축함 6척 교체 파견

해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형 구축함(KDX-II)이 교대로 파견되며 1차로 KDX-II 5번 함인 강감찬함(4천500t)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9일 "해군에서 소말리아 파견 함정으로 강감찬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건조된 KDX-II 6척의 임무 등을 고려해 그런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따라 2006년 3월 건조돼 작년 9월 실전 배치됐다.

해군은 강감찬함을 1차로 소말리아에 파견하고 함정 정비 등을 고려해 나머지 5척의 KDX-II를 4~5개월 단위로 교체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19일 "해군에서 소말리아 파견 함정으로 강감찬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건조된 KDX-II 6척의 임무 등을 고려해 그런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감찬함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따라 2006년 3월 건조돼 작년 9월 실전 배치됐다.

(수중폭파반), SEAL(육해공 전천후 작전팀), EOD(폭발물처리반), 해상대테러 부문 전문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승조원 200여명이 탑승하는 이 함정은 고려시대의 명장으로 거란의 10만 대군을 수공(水攻)으로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진취적 기상을 잇기 위해 함명을 '강감찬함'으로 정했다.

해군은 추무공 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왕건함, 강감찬함, 최영함 등 KDX-II 6척을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새정부 국정 방향 '오바마-바이든 플랜' 발표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 핵포로 문제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서도 맞설 것"이라고 강조, 한국 등 교역상대국에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北과 조건없이 직접 외교"

"공정무역 위해 싸울 것" 시장개방 압력 시사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재검리한 국정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제시했다.

플랜은 전세계 테러 근절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집중,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고 테러를 차단, 절멸시키며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을 대비시키겠다고 밝혔다.

플랜은 또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4년안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핵확산방지구상)를 강화하며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핵테러를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플랜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플랜은 그러나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이 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재검리한 국정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제시했다.

또 플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 핵확산을 단속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국가가 NPT 규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 플랜은 '핵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러시아 및 다른 핵보유국들과 핵무기 비축량을 감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로 군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시아 정책과 관련, 플랜은 오바마-바이든은 아시아에서 양자간 합의나 정상회의 이상의 것으로, 북핵6자 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형성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기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플랜은 "오바마와 바이든은 외국과 교역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서도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 대북 배라 살포 강력 대처

정부는 19일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배라 살포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19일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배라 살포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a detailed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Travel advertisement for Hanrahan (한라산 등반) featuring a 'Big Sale' (대박) and 'Special Price' (초특가 세일!!!). Lists tour packages, prices, and departure times for various routes.